

겨울빛축제 준비 총력... 함평군, 10일부터 27일 엑스포공원 임시 휴원 결정

황금박쥐전시관·함평군립미술관 등 일부 시설 정상 운영

전남 함평군(군수 이상익)은 '2025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겨울철 대표 축제인 '함평 겨울빛축제' 준비를 위해 엑스포공원을 오는 10일부터 27일까지 임시 휴원한다고 7일 밝혔다.

'2025 대한민국 국향대전'은 오는 9일을 끝으로 17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한다. 군은 국향대전 종료 직후 엑스포공원 내 무대 철거와 주요 시설 정비 등에 대규모 장비가 이동하는 만큼 관람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휴원 조치를 결정했다.

휴원 기간 동안 군은 '함평 겨울빛축제' 개막 준비에 본격 돌입한다. 군은 올해 빛 축제에서 '빛의 미로' 등 대형 체험형 조형

물과 겨울 테마 경관조명을 선보이며, 관람객 체험형 콘텐츠도 대폭 강화된다.

또 전력 보강, 온열 및 편의시설 확충, 미끄럼 방지 등 관람 환경 개선에 주력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축제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겨울빛축제는 11월 28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45일간 함평엑스포공원에서 열리며, 엑스포공원뿐 아니라 읍 시가지 일원까지 범위를 확대해 지역 상권과 연계된 야간 관광형 축제로 꾸며질 예정이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국향대전의 열기가 이어지는 만큼, 겨울빛축제 또한 완성도 높은 콘텐츠로 군민과 관광객께 감동을 드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안전



한 축제장 조성을 위한 불가피한 임시 휴원 조치인 만큼 군민과 방문객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휴원 기간에도 함평엑스포공원 내 함평군립미술관은 정상 운영되며, 자세한 내용은 관광정책실(☎061-320-2212)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함평/전광춘 기자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10일부터 2025년산 공공비축미곡을 매입한다.

이번 매입량은 건조벼 8,180톤, 산물벼 2,691톤, 친환경벼 1,483톤, 가루쌀벼 2,006톤으로 총 14,360톤이다.

매입 품종은 새창무·영호진미 2종으로, 산물벼는 11월 말까지 영암군통합RPC·대우미곡RPC·영암미곡RPC에서, 건조벼는 이달 10부터 읍·면별로 매입에 들어간다.

공공비축미곡 출하 농업인은, 논에서

영암군, 10일부터 2025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생산된 2025년산 매벼를 수분 13~15% 등 품종 검사규격을 준수해 대형 800kg 포장재에 담아 출하해야 한다. 올해는 반드시 신형 포장재를 사용해야 하고, 구형 포장재를 사용하면 매입 불가다.

품질검정제도 시행으로 매입 품종이 아닌 벼를 출하할 경우, 5년간 공공비축미곡

매입에서 제외됨으로, 불이익을 받는 농가가 없도록 매입 품종 관리에 철저한 주의를 영암군은 당부했다.

공공비축미곡 매입 가격은 10~12월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반영해 12월 중 결정된다.

수매 직후 40kg 포대당 중간정산금 4

만원을 지급한 다음, 연말까지 최종정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깨씨무늬병, 수발아 등 피해 벼는 12/14일까지 전량 매입할 계획이고, 매입 희망 농가는 읍·면 산업건설(경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피해 벼 매입 품종은 유색·가공용 벼를 제외한 쌀벼 포함 모든 품종으로, 매입가격은 공공비축미곡 1등급 매입가격에 등급별 가격지수 55.13~80.77%를 적용한다.

영암/김희선 기자

강진군 군민행복지원금 1인당 20만원 지급

강진 반값여행 정책에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 마중물 기대

강진군이 어려운 재정 가운데에서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강진군민행복지원금을 지급한다. 고물가 고금리 등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을 돕고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되는 이번 민생지원금은 순수 군비로 지급한다.

군은 이를 위해 당초 1회 추경 시 관련 예산 64억원을 편성해 놓았었다. 그러나 지난 6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의 민생경제회복을 위한 소비쿠폰이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됨에 따라 군 지원금의 지급 시기를 늦춰 정부 2차 지급 후인 11월에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강진군 군민행복지원금은 오는 11월 24일부터 12월 19일까지 지급된다.

군민 1인당 20만 원씩 전액 지류형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온라인 신청 및 지급은 하지 않는다.

지원대상은 10월 31일 기준으로 강진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또한 외국인 중 결혼이민

자와 영주권을 가진 사람도 포함된다.

이번에 군에서 지원하는 군민행복지원금은 세대 단위로 신청 및 지급된다. 세대주가 신청하고 지급받는 형식이다. 정부지원금이 세대원 각자 별도로 신청했던 것과는 다르다. 좀 더 빠른 지급을 통해 신속하게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다.

신청 방법은 신청 기간에 세대주가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읍면사무소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되며 신청과 동시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세대주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세대주의 위임장을 받은 세대원도 신청 가능하다.

특히 군은 초기 일주일동안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며 거동불편자나 고령자를 위해 마을로 찾아가는 신청제도를 동시에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에 지급되는 강진사랑상품권은 강진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면 어디서든 사용가능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되도록 12월말까지 사용하는것이 원칙이다.

강진/손경실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카메라 뉴스



무안군, '무안군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 개소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5일 일요일 오후 중흥S클래스 에듀파크 아파트 단지 내에 '무안군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무안미래 다함께돌봄센터)'을 개소했다.

새로이 문을 연 무안군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은 총면적 108.1㎡(약 32평) 규모로, 정원 2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무안군사회복지협의회가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어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산 군수는 "무안군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 개소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단단히 다지게 됐다"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무안군을 만들기 위해 돌봄 인프라를 촘촘히 구축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무안군 제공



곡성군, 2025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실 운영

곡성군(군수 조상래)이 지난 11월 4일과 5일에 곡성중앙초등학교 5·6학년 학생 109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실'을 운영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학생들의 자전거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올바른 자전거 타기 습관을 기르고 안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이번 프로그램은 전문 강사가 학교를 직접 찾아가 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됐다. 교육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 진행했다. 강당에서는 PPT 자료를 활용해 자전거의 역사와 교통안전수칙 등을 배우고, 운동장에서는 자전거 타기 실습, 안전장비 착용법, 횡단보도 건너기 등 실제 상황을 체험하며 배울 수 있도록 했다.

곡성/이정수 기자



영광군, 2025년 청년공동체 성과공유회 개최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6일 영광청년육아나눔터에서 전남형 청년공동체 6개 팀,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공유회에서는 그동안 공동체가 추진해 온 활동 결과물을 전시하고, 활동 영상 상영과 팀별 성과 발표를 통해 사업

영광군 청년공동체는 ▲그림터(미술문화 활성화) ▲글로리아모니(청년 음악가 공연) ▲영광스팟터즈(관광 콘텐츠 제작) ▲맹이어로즈(반려문화 활성화) ▲글로리아모니(청년 상담 프로그램 운영) ▲안터랩소디(실용적 콘텐츠 개발과 회원제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며 의미 있는 활동을 펼쳐왔다.

영광/이현식 기자



새로운 에너지 세상

자연이 만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세상은 더 밝아지고
우리는 더 따뜻한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태양의 힘으로 움직이고,
바람이 만든 에너지로 밝게 빛나는 세상

한국전력이 깨끗한 에너지로
새로운 에너지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